

노지감귤 값 초강세...품질·출하량 '관건'

도매시장 경락가 2만원 돌파...외관·당산비 좋고 적정 출하 영향

초기 하루 1000t 이상 넘을 시 가격불안 우려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를 시작한 가운데 초기 경락가가 2만원을 돌파하면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인 데다 하루 평균 출하물량도 1000t을 밑돈 데 따른 영향이어서 앞으로 품질과 출하량 조절이 가격유지에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등에 따르면 6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9개 주요 도매시장의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는 10kg 상자당 2만700원으로 전날보다 1000원(6.1%) 상승했다.

지난 1일 첫 출하된 올해산 극조생 노지감귤은 3일 열린 첫 경매에서 1만5900원으로 비교적

좋은 가격으로 출발했다. 이어 4일 1만9300원으로 21.4% 오른 후 5일 1만9700원, 6일 2만1300원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출하 초기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경락가 수준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맛이 좋고 출하량 증가폭이 크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일 195t을 시작으로 2일 193t, 3일 438t, 4일 209t, 5일 539t 등 시장에서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은 물량이 출하돼 경락가가 높게 형성됐다는 얘기가.

지난해의 경우 첫 노지감귤 경매가 이뤄진 10월 6일 1만7700원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이후 급락했다. 7일 1만6500원, 8일 1만

5400원에 이어 9일에는 1만5000원대가 무너진 후 일주일 만에 1만2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출하량도 첫 날 594t을 시작으로 빠르게 늘면서 일주일 만에 1000t을 훌쩍 넘어 2000t에 육박했다. 이때부터 경락가는 1만원선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악화됐다.

올해도 출하초기 물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락가가 기대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물량이 증가할 경우 분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과일관측'을 통해 10월 경락가는 지난해보다 높은 1만3000~1만5000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출하량도 늘어날 것이

라는 점이다. 농경연은 생산량 증가로 10월에만 지난해보다 16% 많은 4만 가량 출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에는 증가폭이 더 커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외관과 당산비 등 품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가격 호조를 전망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등 소비둔화 요인이 적지 않아 출하량 증가는 가격경색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높다.

가락동 도매시장 내 농협공판장 김정배 팀장은 "출하초기 감귤의 맛이 좋고 출하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상당히 높다"면서 "그렇지만 시장 반입량이 갑자기 늘면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초기 분위기는 물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정익 기자 chejiugod@jejuilbo.net

JTO 지정면세점 이전 '청신호'

(제주관광공사)

유일호 기재부장관, 제주 유치 변경 허용 고시 개정 밝혀

영업장 축소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던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의 입지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광객의 면세쇼핑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입지를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세청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관광객이 이용가능한 도내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항면세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위치

한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 2곳이 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JTO 지정면세점은 연매출이 2013년 413억원, 2014년 414억원으로 담보상태에 있다가 2015년 551억원으로 늘었다.

JTO는 JDC 공항면세점에 비해 열악한 매출을 개선하기 위해 해선 입지 이전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매장 면적을 확장해 브랜드 유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운영고시에 의해 제주공항·항만과 ICC JEJU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ICC JEJU와 부영호텔 간 연결통로가 조성될 경우 면

세점 지역의 372.8㎡(112평)가 면세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연매출의 12% 이상(70억~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입지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은 "면세점 수익은 대부분 제주관광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이전이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아직 장소이전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확정된 개정안이 나오고 난 후 접근성과 관광객 편의,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코릿 제주 페스티벌' 주말 개최

국내 유명 맛집과 레스토랑의 음식을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국내 TOP 레스토랑의 맛을 한 자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코릿 제주 페스티벌'을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하얏트 리젠시 제주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유명 맛집의 음식을 한순에 들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유명 셰프가 진행하는 '셰프 라이브쇼',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고급 코스요리를 맛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 식탁'으로 진행된다.

페레노, 보트르메중, 리스토렌테 에오, 스키조, 진진, 하동관 등 유명 국내 레스토랑과 밀리우, 스

시호시카이, 서문수산, 일이탈리아노, 올댓제주 등 '코릿 제주 TOP30'에 선정된 도내 맛집들의 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오늘 날씨 ● 해돋이 06:33 해질 18:10 ● 달돋이 11:42 달질 22:21
2016년 10월 7일(금) 물때 14 물(음 9.7) 만조 01:22 / 14:37 간조 08:07 / 21:11

낮부터 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에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21도, 낮 최고 기온은 24~25도가 되겠다. 바다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만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남해서부 동쪽만바다에서는 1.5~3.0m로 일겠다.

제주도	19/24	서산	21/24
한라산	14/18	서귀포시	21/25
고산	19/25		

주간 날씨

8일(토)	22/24	9일(일)	16/20	10일(월)	16/21
-------	-------	-------	-------	--------	-------

전국 날씨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강릉	춘천	청주

세계 날씨

베이징	도쿄	방콕	뉴욕	런던
-----	----	----	----	----

※ 날씨 제공 = 기상청(www.kma.go.kr) ※ 문의 = 국번없이 131

이주민 특별보증 관심 최대 5000만원 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사진, 이하 재단)이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보증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단은 제주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튼 이주 지역업자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이주 정착민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만 20세 이상의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 등이다.

보증 한도는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금액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이다.

신정익 기자 chejiugod@jejuilbo.net



결혼이민여성에 일자리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2016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6일 오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희정)에서 개최된 가운데 구직자가 현장면접을 보고있다. 고기철 기자 haru@jejuilbo.net

'제주국제가구센터' 애월읍서 재개장

30여 개 업체 참가 다양한 제품 소비자와 직거래

대한민국 가구 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주국제가구센터'가 지난 5일 애월읍 애월119센터 옆 특설전시장에 다시 문을 열었다.

단일 가구전시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제주국제가구센터'에서는 도민과 참가업체가 직접 만나 직거래를 통해 다양한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주국제가구센터'에는 3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종합가구와 이

탈리아 수입가구, 엔틱·베비·주니어·편백가구, 침대와 소파, 식탁, 부엌가구 등 국내외 가구 전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또 각종 생활용품과 장식용품, 공예, 실내 인테리어 조정 소품 등은 도민과 참가업체가 직접 만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경매와 공작 이벤트를 진행한다.

200만원 상당의 돌침대와 150만원 상당의 가족소파, 100만원

상당의 돌식탁 등을 증정하는 '만원의 행복, 이웃돕기 경매행사'도 오는 8,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제주국제가구센터' 1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19일까지 골프·등산복과 숙녀복, 패션잡화 등을 최대 95%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패션박람회'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제전은 MLF와 한국 NGO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가구인연합회와 서울시사무용품가구관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전시장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문의 799-0343.

중소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황재욱)는 오는 17일까지 올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6640명이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15개국이다.

인들보다 더욱 기대되는 내일

제주도민과 함께 한 7년!
앞으로도 차별화된 정보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이 있기를 기원하며
새천년 새세대에 도전의 빛이 되어 제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종합주류도매
(주)경민유통

대표 신민호 · 문은희 외 임직원일동